

## 19세기 중엽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고찰\*

서광덕\*\* · 이국봉\*\*\*

### 【목 차】

1. 근대도시 ‘상하이’의 성장
2. 근대문화 생산의 중심, 상하이
3.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의 형성
  - 1) 상하이의 서학 출판 단체
  - 2) 상하이 중심의 동북아해역 교통망
4.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와 동북아해역
  - 1) 일본과의 정보네트워크 형성
  - 2) 조선의 서구 근대학술 수용과 상하이
5. 결론

### 【초록】

이 글은 19세기 중엽 상하이가 개항된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가운데 동북아해역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상하이가 근대 동아시아에서 서학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중심도시가 된 데에는 서양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이 서양 선교사들은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 중국인들에 대한 선교와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교육 및 출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한역서학서는 상하이를 비롯하여 중국의 각지로 전파되었고, 심지어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하여 상하이는 근대 동북아해역 지식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막부말부터 메이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상하이와의 무역을 통해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한역서학서를 많이 수용했지만, 조선의 경우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단지 베이징과의 육로 교통망을 통해 한역서학서를 수용하였고 그것의 종류 역시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조선 역시 시기는 일본보다 다소 늦지만 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skd2021@hanmail.net)

\*\*\* 上海交通大学 國際與公共事務學院 教授 (kookbongl@hanmail.net)

항이후 관료들이 상하이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들에 의해 상하이에서 생산한 서학이 수용되었다. 또 이처럼 상하이에서 생산된 서학이 중국을 비롯해 조선과 일본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망이 중요하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북아해역의 교통망에 대한 연구는 바로 상하이 지식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한역서학서, 상하이, 유통망, 지식네트워크, 조선, 선교사, 일본

## 1. 근대도시 ‘상하이’의 성장

상하이는 전통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장쑤(江蘇)와 저장(浙江)이란 지역을 배후지로 갖고 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훌륭한 항구와 장강(長江)이 바다로 흘러드는 입구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전부터 서방의 영향을 쉽게 받는 지역이었다.<sup>1)</sup>

쑤저우(蘇州)나 양저우(揚州)보다 낮았던 상하이 문화의 지위가 개항 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타오(王韜)는 “상하이는 서양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곧 전통문화가 해체되고 근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서양문화를 수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개항 이후 상하이에서는 서양인과 중국인의 분리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래서 서양인들은 자신들만의 주거지 곧 조계(租界)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 분리 정책이 소도회(小刀會)의 난으로 붕괴되고 조계지의 화양잡거(華洋雜居)가 용인되었는데, 이것은 노동력 및 상품 소비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계지의 서양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아편전쟁이후 개항된 5개 항구 가운데 광저우(廣州)는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대한 적대감과 저항이 강렬했으며, 전통적으로 배외의식이 강한 곳이었다. ‘객가인(客家人)’이란 명칭은 바로 이런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광저우인들의 전투성과 용감함은 오히려 광저우에 봉건전제제도를 지속시켰다. 푸저우(福州)도 푸젠성(福建省)의 상품 집산지에 불과했고 게다가 푸저우인들도 침략자를 극도로 증오했다. 샤먼(廈門)도 무역활동을 하기에는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고, Ningbo(寧波)는 저장 지역의 주요 상품집산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5개의 개항도시 중에서 상하이가 비교 우위를 갖게 되었다.

상하이는 외국에 대한 배척의식이 약했다. 작은 어촌에서 큰 규모의 항구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지인이 상하이로 이주해 와 토착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도시가 확장되었기에 다른 도시보다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상하이에 형성된 조계는 먼저 안전을 제공했다. 이것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며 그래서 서방문화를 수용하는데 유리했다. 당시 중국의 봉건제도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조계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조계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은 중국(상하이)를 반식민지사회로 떨어뜨렸지만, 외국자본

1) 명나라 때 이미 상하이에는 대량의 천주교도가 존재했는데, 강남에 5만 명, 그 가운데 상하이에 4만 명이 있었다고 한다. 곧 상하이는 천주교의 중요한 선교 기지였다.

의 권익을 보호하여 이들의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게다가 서양식민주의 가치가 존재했다. 상하이 조계의 법치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했으며, 중국의 봉건전제통치를 반대하는 중요한 기지로 작용했다. 그래서 Kang Youwei(康有爲), Huang Zunxi(黃遵憲), Yan Fu(嚴復), Liang Qichao(梁啟超), Cai Yuanpei(蔡元培) 등의 근대 중국 지식인들은 상당수가 상하이에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소설을 비롯한 상하이 문화는 문화적 기초가 탄탄한 장쑤와 저장으로 팔려가고, 또 경제발전에 따라 상하이에 문화수준을 갖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거대한 문화시장이 형성되었는데, 1890년대 해관(海關)의 자료에 의하면 장쑤에서 문맹을 벗어난 남자가 전체 60%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 기계업의 발전과 함께 상업성 신문업이 발달하였다. 게다가 과거에서 낙방한 타락한 문화인이 대거 존재했는데, 바로 이들이 저널리스트가 되었다. 이것은 마카오와 홍콩, 광저우의 신문이 상하이보다 발전이 더딘 이유와 대립한다. 이곳은 문화 빈곤지역에다 큰 규모의 문화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상하이가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sup>2)</sup>

## 2. 근대문화 생산의 중심, 상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하이가 근대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라는 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곧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하이에 들어온 서양인들에 의해 서구 근대지식이 소개되었기 때문이고(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근대지식이 장쑤나 저장을 넘어서 더 먼 곳까지 전해질 수 있는 교통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갈망하는 소비자층이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상하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이 발표의 주제인 동북아해역의 여러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하이에서 생성된 근대 지식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위의 3가지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동북아해역에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식네트워크의 지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생산이란 측면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텍스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척되었다. 또 소비라는 측면에서 어떤 텍스트들이 조선이나 일본에 수용되었고, 또 이 텍스트들이 그 국가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적지 않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생산과 소비의 중개 역할인 유통에 대한 연구는 사실 미흡하다. 이것은 생산된 텍스트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 청조이전 아주 이른 시기에 서학 관련 서적이 들어왔던 방식처럼 곧 선교사나 외교사절 그리고 상인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한정된 수의 서학 책이 권력자나 특수 계층에 의해 수용되었던 것과

2) 위엔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 참조.

달리 19세기 중엽이 되면 동서간 교류가 빈번해지고, 또 근대적인 인쇄 및 출판이 가능해져서 이러한 책들의 유통 역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의 유통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러한 서학 서적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 항로를 비롯한 교통망 그리고 관료, 선교사와 상인들의 이동 등 유통의 네트워크를 사료를 바탕으로 규명해야 한다.

우선 근대 지식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서양 선교사들의 활약을 주목해야 한다. 아편전쟁 이전에 서양 선교사들은 비록 중국의 변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였지만, 성서 번역과 잡지 간행 등을 통해 보여준 그들의 선교와 번역 활동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번역된 중국의 근대를 알리는 징후였다. 정말 중국에서 서양 학술 번역의 과정을 고찰할 때, 19세기 초부터 아편전쟁 이전까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활동한 시기를 번역의 전사(前史)로 본다면, 그 이후 중화민국 등장 이전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1843-1860)는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뒤, 영국, 미국, 프랑스와 차례차례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저우를 비롯한 연해안의 5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선교사들이 연해안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2단계(1860-1900)는 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이후 서양선교사들의 중국 내 선교활동, 여행,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 그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된 시기이며, 한편으로 서양 열강의 군사적 힘에 대한 방어 의식에서 청조 국가가 직접 서양 학술의 번역에 착수하게 되는 시기이다. 제3단계(1900-1911)는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하면서, 유럽의 열강에 대한 패배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은 시기이며,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하던 중국의 지식인들이 역사상 최초로 일본으로 유학하게 된 시기이다. 무술변법의 주도자들이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게 된 것과 맞물려, 중국인들이 일본의 학술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메이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서양사상 관련 문헌을 대대적으로 중국어로 번역하게 된 시기이다.

근대지식의 생산 주체로서 위의 1,2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곧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였다. 연구에 의하면 1840년대부터 90년대까지 17개의 기독교 출판기관이 차례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에 분포되었다. 약 반세기 동안 외국인들은 170여 종의 중외문 신문을 발간하여 당시 중국의 간행물의 95%를 점했다고 한다.<sup>3)</sup>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1807년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의 모리슨(Morrison, Robert 중국명 馬禮遜, 1782-1834)은 이미 중국의 광저우에 도착하였으며, 그는 중국에 온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였다. 초기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말레이, 싱가포르 등 주로 남양 일대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였지만, 청말의 중국에 서양의 종교와 학술이 전래되는 서막을 연주하였다. 19세기 초기 선교사들의 번역은 그 이후 중국에 온 선교사들의 저작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성서의 번역을 비롯하여, 세계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전했다. 그중에서 모리슨이 번역한 『신천성서』(神天聖書, 1823, 말라카, Ml

3) 葉再生, 「現代印刷出版技術의傳入與早期的基督教出版社」, 『中國近代現代出版史學術討論會文集』, 中國書籍出版社, 1990.

ne와 공동번역)는 신구약을 포함한, 중국어로 된 최초의 완역 성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문어법』(*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 1814), 『중영사전』(*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1822) 등과 같이, 두 문화 사이의 소통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문법과 사전류의 서적이 간행된 것을 보면,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에 의한 성서 번역이 이전의 가톨릭 선교사들의 번역과는 달리, 근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공리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 선교사 브리지먼(Bridgman, Elijah Coleman 중국명 裨治文 혹은 高理文, 1801-1861)이 편찬한 『아메리카 합성국지략』(싱가포르, 1838)은 아메리카에 관한 전반적 해설이며, 그 중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뒤에 『아메리카 합중국지략』(광저우, 1846), 『연방지략』(1861, 상하이) 등의 서명으로 개정판을 거듭했으며, 근대 중국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아메리카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원(魏源, 1794-1857)이 지은 『해국도지(海國圖志)』(초판 1842)에서 아메리카에 관한 서술은 이 책을 전거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초기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중국에 끼친 영향 중에서, 1815년 모리스와 밀느(Milne, William 중국명 米憐)가 말라카에서 공동으로 창간한 『찰세속 매월통기전』(1821년 정간), 1833년 도이치 국적의 귀츨라프(Gützlaff, Karl Friedrich August 중국명 郭實獵, 1803-1851)가 광저우와 싱가포르에서 창간한 『동서양매월통기전(東西洋每月統紀傳)』(1838년 정간)등과 같은 월간 잡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잡지들은 선교라는 목적 이외에도,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인에게 유럽의 역사와 지리, 문화와 풍속, 과학과 기술 등을 소개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간행한 이러한 잡지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잡지였으며, 잡지의 등장을 근대의 일면이라고 한다면, 근대적 잡지의 태동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4)</sup>

### 3.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의 형성

#### 1) 상하이의 서학 출판 단체

1724년 옹정제가 금교령을 내려 3백명에 가까운 예수회 선교사들을 광둥과 마카오로 추방했고, 이로 인해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한 저작활동은 거의 중지되었다. 이것은 100년 이상 계속된 중국의 ‘정보’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급속히 후퇴시켰고, 반대로 난학(蘭學)장려책을 실시한 일본이 나가사키를 창구로 서양의 신지식을 축적하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다시 정보 선진국의 지위를 중국이 되찾는 것은 1840년부터 42년에 걸친 아편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5개항이 개항되고, 예수회와 같은 카톨릭 선교사는 물론 전쟁전부터 말라카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면서 호시탐탐 중국에서의 전도를 노리던 런던회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이 5개의 항구로 쇄도하여 적극적으로 선교활동

4) 양일모, 「근대 중국의 서양학문 수용과 번역」, 『시대와 철학』 15권 2호, 2004 참조.

동을 전개하였다. 19세기 중국 서학(西學)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의 지식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출판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활동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카톨릭 선교사들보다 예수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역양서(漢譯洋書)를 대량으로 저술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중국의 정보 선진국의 지위를 되돌려준 주역이었다. 이 선교사들의 저술을 모아 정리한 중국인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위원의 『해국도지』(1842년 초판)이며, 이것은 1850년대에 조선과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그밖에 해외사정 안내서가 주변 국가에 전래되었다.

이들의 지식선교활동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육사업,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 출판활동, 신문·잡지 발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이러한 사업과 활동은 개인이 아닌 그룹이나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간 인물들을 보면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 협력관계 내지 공동 활동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술과 교육활동은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활동에는 서구 상인들과 외교관, 변호사, 의사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로써 이들의 활동성격도 정치, 경제적 이해와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원을 넘어선 근대서구에서 추진하던 보편적인 지식계몽의 성격도 아우르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국에서의 지식 프로젝트로서의 서학 보급운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구의 특히 영·미의 대중국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9세기 중국에서의 서학보급과 관련하여 비교적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 출판, 조직 활동을 들 수 있다. 즉 아편전쟁 이전인 1836년의 ‘모리슨 교육회(Morrison Educational Society)’와 1834년의 ‘중국 실용지식 보급회(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를 비롯하여, 1844년의 ‘墨海書館(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 그리고 1876년의 ‘格致書院’, 1877년 ‘益智書會(School and Textbook Series Committee, 1890년 Educational Association of China로 영문명 개칭)’와 1887년 ‘同文書會(The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Christian and General Knowledge among the Chinese, 1894년 廣學會로 중국명 개칭)’ 등이 바로 19세기 중국에서 서학 보급에 종사했던 대표적인 단체나 조직들이다.

‘중국 실용지식 보급회’는 중국인이 서구인을 야만인으로 멸시하는 것에 반발하여, ‘지적 충격’을 통해 서구문명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지’와 ‘고립상태’로부터 중국인을 구하기 위해 지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834년에 광저우와 마카오에 거주하는 외국의 선교사, 외교관, 상인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1846년까지 존속하면서 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통사, 미국사(E. C. Bridgman의 『合衆國志(美理哥國誌略)』, 이습우화 등에 관한 보급용 책자들을 6-8권을 출판하였고, 앞에서 말한 1833년에 창간된 『東西洋每月統紀傳』(Chinese Monthly Magazine, 1833-1839, 싱가포르)를 기관지로 삼아 실용적인 신지식을 보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東西洋每月統紀傳』는 E. C. Bridgman과 Charles Gutzlaff가 주편을 맡아, 세계 각지의 지리,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지리와 그 지역에서의 서구의 식민지 활동을 소개하였다. 그럼 묵해서관(墨海書館) 등 서학 보급 기관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먼저 상하이에 들어온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는 영국 런던회 소속의 매드허스트(로버트 모리슨과 함께 남양에서 프로테스탄트 전교를 담당한 인물로서 모리슨이 죽고 난 뒤 실질상

의 후계자로서 런던회의 중국전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와 록하트였다. 1843년에 각자의 근거지인 광저우와 저우산(舟山)의 덩하이(定海)에서 이주했는데, 그 때 이들은 또 원래 바다비아에 있던 런던회의 인쇄소 그리고 덩하이에 있던 록하트의 진료소를 상하이의 신천지(新天地)로 이동시켰다. 이것이 바로 묵해서관과 인제의관을 명명된 시설로서 런던회 소속의 교회 곧 천안당(天安堂)과 함께 ‘麥家圈’이라는 장소로 크게 발전하여 상하이에서 프로테스탄트 전교파의 큰 활동거점이 되었다.

묵해서관은 15년 이상 25만부에 가까운 漢譯聖書와 171종의 漢文傳道書와 과학서를 발간했다. 천문/지리/수학/물리/의학 분야를 망라했으며, 이에 상하이는 서양정보발신지로서 발돋움하고, 1850년대 후반에 大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1860년대에 들어와 묵해서관의 인쇄업무 대부분이 Ningbo(寧波)에서 상하이로 이전해온 미국 장로회 소속의 美華書館(寧波시대의 명칭은 華花聖經書房, 1844년 마카오에서 창립)에 양도되고, 곧 인쇄설비 그 자체도 『上海新報』의 발행을 준비하는 자림양행(字林洋行)에 팔렸다. 게다가 왕타오(1849년에 묵해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3년간) 등 중국 낭인(浪人)과 협력했고, 왕타오는 1857년부터 와이리(와) 협력하는 형태로 『육합총담(六合叢談)』이란 잡지를 편집했다.

墨海書館의 활동에는 메드허스트 외에도 화학원장 밀린(William Milne, 米怜)의 아들이자 ‘모리슨 교육회’의 교사였던 윌리엄 찰스 밀린(W.C. Milne, 美 魏茶)과 영국 왕립협회 중국 지부 회원이었던 윌리엄(A. Wylie), 그리고 뮌헤드(W. Muirhead), 에드킨스(J. Edkins, 艾約瑟)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후자 3인은 또 1857년에 윌리엄슨(A. Williamson, 韋廉臣) 등과 더불어 발간된 최초의 근대적 중문 종합잡지인 『六合叢談』(Shanghai Serial) 잡지를 발간하였다. 墨海書館의 출판서적 내용을 보면 여전히 종교적 내용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1844년부터 1860년까지 대략 33종의 비종교 서학관련 서적을 출판하였고, 『六合叢談』은 『東西洋每月統紀傳』을 이어 ‘文’을 통한 중서소통과 중국에 대한 서학의 보급을 추동했으며, 중국인 지식계몽을 추구하였다. 묵해서관보다 20년 뒤인 1860년대에 들어와서 ‘洋學所’에 해당하는 京師同文館, 上海廣方言館, 江南製造局翻譯官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비종교 서학의 소개와 보급은 주로 1870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868년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 산하에 부설한 번역(翻譯館)과 후리어(J. Fryer) 등이 『中西聞見錄』(1872-1875) 폐간을 대신하여 1876년 창간한 『格致匯編』(1876-1892), 그리고 앞서 말한 익지서회(益智書會)(1877) 등이다. 그러나 중국에 소개·번역되는 서학의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알렌(Y.J. Allen)이 주편한 『萬國公報』와 ‘同文書會(廣學會)’이다. 『萬國公報』는 처음 알렌이 1868년에 『教會新報』의 이름으로 주간지로서 창간했다가, 1874년 『萬國公報』(Globe Magazine)로 개칭하였다.

그 외에 동문서회, 이 학회의 주창자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일찍이 익지서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다. 그는 1884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 “중국서적 및 소책자 협회(Chinese Book and Tract Society, 국명은 ‘同文書會’)”를 조직하여 상하이에 인쇄소를 두고 종교와 과학에 한 중국어본 서적들을 중국에 보급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익지서회와 함께 영국에서 시작된 ‘실용지식 보급회’와 같은 형태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동문서회는 곧 해체되고, 윌리엄슨은 1887년에 다시 동명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바로 먼저 시작한 인도의 경험을 직접적인 모델로 삼고, ‘익지서회’ 나 『萬國公報』, 『中西聞見錄』, 『格致匯編』 등을 통해 형성된 인적망과 활동 경험을 결집하여 조직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19세기 초기 중국에 있었던 ‘SDUKC’와 마찬가지로 실업가, 정치·외교가, 변호사, 의사, 선교사 등 다양한 지식인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운영자금도 다양한 계층의 후원으로 충당되었다. 즉 19세기 후반 서학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다시 하나로 재조직하여 체계적인 실천활동을 추구하던 것이 바로 동문서회, 즉 광학회였던 것이다.

또 광학회는 그 영문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서학의 보급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학과 관련된 광학회의 주요 활동은 무엇보다도 서적의 출판이다. 1898년 광학회에서 분류한 서학을 보면, 道學, 史學, 商學, 格致로 구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史學과 商學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史學 가운데는 서구의 정치변화 및 제도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당시 영향력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萬國公報』 잡지 외에 『泰西新史攬要』(李提摩太, 1894), 『中東戰紀本末』(林樂知, 1896), 『七國新政備要』(李提摩太, 1889), 『新政策』(李提摩太, 1895), 『文學興國策』(林樂知, 1896), 『富國養民策』(艾約瑟, 1893), 『自西徂東』(花之安, 1888 재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서적은 주로 국가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萬國公報』의 여러 시평 및 정론과 함께 당시 변법운동의 직접적인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차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넓게는 바로 ‘한자문화권’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만국공보』의 배포 내지 판매지역을 보면, 중국의 주요 도시와 일본, 조선과 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 태국 등 동남아시아 및 미국, 유럽과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세계 각지의 화교들뿐만이 아니라 한자문화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청일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구인들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자, 아시아 변화의 핵심이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이미 서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자체적인 서구화를 추구하던 일본이 아니라, 서구인들의 기획에 따라서 점차 변화하는 중국이었다.<sup>5)</sup>

<표1> 청정부가 설립한 서학 교육 및 번역 기관<sup>6)</sup>

기구명	설립년도	설립도시	설립 주도인물	주요 설립 목적
京師同文館	1862	北京	奕訢	외국어교육
上海廣方言館	1863	上海	李鴻章	외국어교육
廣州廣方言館	1864	廣州		외국어교육
江南製造局	1865	上海	李鴻章	기기제조
江南製造局 翻譯局	1865	上海		번역
金陵機器局	1865	南京	李鴻章	기기제조
福州船政局	1865-1912	福州	左宗棠/沈葆楨	기기제조
天津機器局	1867	天津	崇厚	기기제조
福州機器局	1869	福州	英桂	기기제조

5) 차태근,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 ‘廣學會’와 『萬國公報』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33호, 2005.

6)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翻譯 研究 — 『萬國公法』 翻譯 事例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5.



기구명	설립년도	설립도시	설립 주도인물	주요 설립 목적
蘭州機器局	1872	蘭州	左宗棠	기기제조
廣東機器局	1873	廣州	瑞麟	기기제조
山東機器局	1875	濟南	丁寶楨	기기제조
四川機器局	1877	成都	丁寶楨	기기제조
天津水師學堂	1880	天津		군사교육
天津武備學堂	1885	天津	李鴻章	군사교육
江南水師學堂	1890	南京	曾國藩	군사교육

## 2) 상하이 중심의 동북아해역 교통망

청나라 때 중국의 대외무역은 크게 서양을 향해서는 越海館의 광저우, 동양 곧 일본을 향해서는 浙海館의 乍浦로 나뉘어 있었다. 게다가 1840년대 후반부터 광둥과 광시에서는 天地會에 의한 무장봉기가 일어나 광저우 일대의 분위가 위험했고 그래서 개항 10년 뒤에 상하이는 다른 항구를 누르고 동아시아 최대의 항구로서 대두했다.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무역, 교통 그리고 정보 등의 분야를 포함한 근대적인 네트워크가 출현했다. 이것은 중국국내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조선과 막부말의 일본도 포함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정기 항로가 홍콩이나 상하이를 기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이 洋行을 하고자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행자의 절반이 상하이를 통해 갔고, 그러면서 상하이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때 상하이에서 만난 이 많은 서양 가운데 일본의 무사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것은 역시 선교사들이 경영한 일련의 인쇄소 등의 근대적인 여러 시설이었다.

게다가 영국의 P&O汽船(Penninsular & Oriental Steam Navigation Co.)이 1850년에 상하이-홍콩간에 정기항로 개설하고 기존의 런던-홍콩간의 연락망을 상하이까지 연장했다, 영국의 P & O가 1859년에 일본의 개항과 거의 동시에 먼저 상하이와 나가사키 사이에 취항하고, 이어서 1864년에 상하이-요코하마 간에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프랑스의 프랑스제국郵船(Services Maritimes des Messageries Imperiale)이 1861년 사이공-상하이간, 또 1863년에 마르세유-상하이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동남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상하이로 직접 연결했다. 그리고 프랑스 제국우선은 1865년에 상하이-요코하마간의 정기항로를 열고 종래의 상하이-마르세유선과의 연결을 가능케 했다. 이후 미국의 태평양郵船(Pacific Mail Steamship Co.)도 1867년에 샌프란시스코와 홍콩간 항로를 열고 그 속에 요코하마와 상하이 등을 기항지로서 넣었다. 또 태평양우선은 이 샌프란시스코와 홍콩간의 항로를 개설하면서 요코하마와 상하이 간을 그 지선에 설치하였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해운(운항)은 郵船만이 아니라 열강의 군함, 상선등도 있어서 상하이는 이 시기 동아시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했다. 약 3,500척의 출입항이었다. 이러한 교통망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하이를 기점으로 해서 동북아해역에 펼쳐진 해운업을 위시한 교통망이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왕래하고 어떤 물자들이

운송되었는지는 상하이의 인쇄출판업과 서적유통망을 살필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이것은 상하이 지식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리다.

## 4.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와 동북아해역

### 1) 일본과의 정보네트워크 형성

원래 일본으로의 정보 전달 루트는 무역선(唐船)이었다. 이미 막부시대부터 무역선이 왕래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乍浦에서 출발하는 무역선 寧波船과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무역선 南京船의 출항지인 저장성과 장쑤성은 청조때부터 일관되게 중국에서 출판의 중심지였다. 또 당시 漢籍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높아가는 시기에 바로 口船에 의한 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에 『海國圖志』를 비롯한 일련의 해외정세를 알려주는 漢籍이 에도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에 전래되었다.

막부말기 상하이는 일본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도시였다. 하나는 소위 반식민지로서 성립한 조계가 바로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의 최전선을 형성하고 거기서 대량의 서양정보가 일본에 전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선교사에 의한 다양한 한역양서가 구미의 지식을 전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강제국을 모델로 한 어떤 종류의 국가관내지 국가상을 제시했다. 이것은 필시 종래의 막번체제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진실로 새로운 ‘國家’의 형태를 추구하는 많은 지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메이지 시기에 들어와서 일본에게 상하이의 역할을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시점에서 일본이 이미 스스로 문명개화를 표방하고 직접 구미로부터 근대 제제도의 수입을 개시했기 때문에 종래의 ‘중계지’로서의 상하이가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구심적인 국민국가를 추진하는 메이지 일본에게 상하이의 근대는 이미 邪魔적이어서 결코 유익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 일본으로의 한역양서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2> 宣教師에 의한 漢訳洋書の 幕末日本에서의 翻訳状況

書名(著者、版元、出版年)	翻刻者、版元、出版年
『数学啓蒙』(ワイリー、墨海書館、1853年)	幕府陸軍所和刻、安政年間
『航海金針』(マックゴワン〈馮高溫〉、寧波華花聖經書房、1853年)	江戸岡田屋、1857年
『地理全志』(ミューアーヘッド、墨海書館、1853~54年)	塩谷宕陰訓爽快楼、1858~59年
『遐邇貫珍』(メドハースト、香港英華書院、1853年)	写本
『全体新論』(ホブソン、墨海書館再版、1855年)	伏見越智蔵版、二書堂発兌、1857年
『博物新編』(ホブソン、墨海書館再版、1855年)	開成所訓(官板)、江戸老皂館、文久年間

書名(著者、版元、出版年)	翻刻者、版元、出版年
『地球説略』(ウェイ、寧波華花聖經書房、1856年)	箕作阮甫訓、江戸老皂館、1860年.
『大英国志』(ミューアヘッド、墨海書館、1856年)	青木周弼訓、長門温知社、1861年
『智環啓蒙』(レッグ、香港英華書院、1856年)	柳河春三訓、江戸開物社、1866年
『香港船頭貨價紙』(日本版は「香港新聞」、Daily press 社、1857年)	開成所官板、文久年間
『西医略論』(ホブソン、仁済医館、1857年)	三宅良斎、江戸老皂館、1858年
『六合叢談』(ワイリー、墨海書館、1857年)	蕃書調所官板、江戸老皂館、1860~62年
『重学浅説』(ワイリー、墨海書館、1858年)	淀陰荒井某傍点、淀陽木村某翻刊、1860年
『内科新説』(ホブソン、仁済医館、1858年)	三宅良斎、江戸老皂館、1859年
『婦嬰新説』(ホブソン、仁済医館、1858年)	三宅良斎、江戸老皂館、1859年
『中外新報』(インスリー、寧波華花聖經書房、1854年)	蕃書調所官板、江戸老皂館、1860年
『代数学』(ワイリー、墨海書館、1859年)	駿河塚本明毅校正、静岡集学所、1872年
『談天』(ワイリー、墨海書館、1859年)	福田泉訓、大坂河内屋、1861年
『植物学』(ウィリアムソン、墨海書館、1859年)	木村嘉平、1867年
『聯邦志略』(ブリッジマン、墨海書館、1861年)	箕作阮甫訓、江戸老皂館、1864年
『中外雜誌』(マックゴワン<麦嘉湖>、上海、1862年)	開成所官板、江戸老皂館、1864年
『万国公法』(マルティン、北京崇実館、1864年)	開成所訓点翻刻、江戸老皂館発兌、1865年
『格物入門』(マルティン、北京同文館、1868年)	本山漸吉訓、明清館、1869年

\*注: 『日本基督教史関係の漢書目録』(基督教宗学会編、文晁堂、1954年)와 기타를 参考해서 작성했음.

위의 표에서 상하이에서 선교사들이 발행한 한역양서가 출판과 함께 일본에서도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책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경로는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들이나 그 관련기관<sup>7)</sup>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관을 통한 전파 경로가 가장 실질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막말에 상하이를 비롯해 청나라를 왕래했던 관료와 유학생 및 상인들에 의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상상해볼 수 있다. 아래 표는 바로 막말 구미 각국에 파견된 사절단과 유학생 현황이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1860년대에 이루어진 사절단과 유학생의 구미 파견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상하이나 홍콩을 경유해서 구미로 향했다. 그리고 이때 상하이나 홍콩에서 구미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면서 얼마동안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상하이에 대한 경험은 구미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자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시간이었다.

7) 대표적인 것이 Religious Tract Society(RTS)이다. “영국[British dominions]과 해외에 기독교 문서, 서적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설립되었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국교와 개신교 동등하게 절반으로 하는 초교파 단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후 RTS는 해외로 진출하면서 19세기에 기독교 문서의 전 지구적 생산과 출판을 담당하던 문서선교 기관으로 부상한다. 런던 본부를 모체로 각 지역에 지회를 두면서 선교사를 통해 문서를 번역 출판하였고, 비서구 사회에서는 아프리카, 인도, 중국의 RTS가 대표적이었다. 상하이에서는 1844년에 RTS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조선은 1890년, 일본은 1899년에 설립되었다. 이고은, 「19세기 동북아 해양로를 통한 서구 개신교 선교사들의 근대 지식 유통」, 부경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18.06.01.

&lt;표3&gt; 幕末 欧米諸국에 보낸 使節團과 留學生의 派遣狀況

使節團	相手国	派遣年	目的	主要成員	備考
	米国	1860	日米修好通商条約批准交換	新見正興 小栗忠順 木村芥舟	米軍艦ポーハタン号による渡航、帰途は香港経由
	仏、英、蘭等	1862	開市・開港延期交渉	竹内保徳 福地源一郎 福沢諭吉	英軍艦オージン号による渡航、往路・帰途とも香港経由
	仏	1864	横浜鎖港交渉	池田長発 田辺太一 杉浦譲	仏軍艦、郵船による渡航、往路・帰途とも上海経由
	仏、英	1865	横浜製鉄所技師招聘等	柴田剛中 福地源一郎	英郵船による渡航 上海経由
	露	1866	日露国境画定協議	小出秀実 箕作秋坪	仏郵船による渡航 マルセーユ経由
	米	1867	軍艦、武器購入	小野友五郎 松本寿太夫	
	仏	1867	第2回パリ万国博参列等	徳川昭武 杉浦譲 渋沢栄一	仏郵船による渡航 上海経由
留學生	相手国	派遣年	目的	主要成員	備考
	蘭	1862	幕府派遣留学	榎本武揚 赤松則良 西周	蘭商船カリブス号による渡航 ジャワ経由
	英	1863	長州藩派遣留学	井上馨 伊藤博文	英商船による渡航 上海経由
	英	1865	薩摩藩派遣留学	五代友厚 寺島宗則 森有礼	英商船、郵船による渡航 香港経由
	露	1865	幕府派遣留学	市川兼秀 山内作左衛門	露軍艦による渡航
	英	1866	幕府派遣留学	中村正直 川路太郎	英郵船による渡航 上海経由
	仏	1867	幕府派遣留学	徳川昭武 杉浦譲 渋沢栄一	仏郵船による渡航 上海経由

\* 注：富田仁編『海を越えた日本人名事典』，石附実著『近代日本の海外留学史』 및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함<sup>8)</sup>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막부말에서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은 서학을 상하이를 통해 받아들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 조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8) 劉建輝, 『魔都上海: 日本知識人の「近代」體驗』, 筑摩書房, 2010.

## 2) 조선의 서구 근대학술 수용과 상하이

같은 시기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와 조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의 일부 연구에 의해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지식 유통이 수신사(修信使), 영선사(領選使) 등의 외교 사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민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교류가 확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이 상하이에 드나든 첫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880년대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특히 1882년 중국과 조선의 ‘수륙무역장정(水陸貿易章程)’체결은 비록 불평등 조약이기는 하나, 점차 기존의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海路)를 통한 교역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고, 1883년 11월에 청국 윤선이 상하이와 인천항을 오가면서 무역이 시작되었으니, 한국인 내왕의 시작도 이 시점일 것이다.<sup>9)</sup> 물론 배가 오가지 않은 시절에도 인삼상인들의 내왕이 존재했으므로 1880년대 이전에도 한국인의 내왕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상하이를 찾은 초기 인물은 역시 상인과 관리였다. 특히 인삼 보따리 장사가 발을 디디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활동 영역은 넓었다. 다음으로 관리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1883년에 海關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관 업무를 맡을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가 파견된 것이다. 權知協辦交涉通商事務 민영익과 뮐렌도르프가 바로 그들이다. 이어서 조희연과 김학익 등이 기계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이 당시에 유학생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양반출신 부호 자제들도 드나들었다. 1885년에 민영익이 상하이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착했으니, 첫 정착인이라 추정되기도 한다. 또 이구원이나 김승학이 찾아든 시기도 이 무렵이다. 윤치호가 도착한 시기도 1885년이였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1894년에 李鴻章을 찾아왔던 金玉鈞이 洪鍾宇에 의해 살해된 곳도 바로 상하이였다.<sup>10)</sup>

본 논문의 주제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1800년대 중반에 과연 조선에서는 상하이를 통해 어떤 漢譯西學書가 수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한역서학서의 한국 전래에 관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한 서적을 통한 서양 학문의 수용 양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123종의 중국본 서학서가 있었다. 이 가운데 18세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서학서가 전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초가 되면 서학 전래의 일대 암흑기에 접어드는데, 그것은 서교나 서학에 대한 억압정책 때문이었다. 앞의 연구에 의하면 순조 1년(1801) 신유박해와 고종 4년(1864) 대원군 집권 등으로 인해 서학서의 전래가 침체되던 중 고종 13년(1876)에 개항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기를 쇄퇴기로 규정한다.<sup>11)</sup>

이렇게 본다면 ‘상하이 지식네트워크’가 형성되던 19세기 중엽에 조선은 상하이를 통한 직접적인 서학의 수용은 아주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1876년 개항이후 중국을 통한 서양학문의 전래보다는 일본이나 서양인을 통한 직접적인 전래가 빈번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1881년에 김윤식 등이 베이징동문관을 시찰하고 總理交涉通商事務衙門協

9) 羅愛子,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pp.49-50

10)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 한울아카데미, 2001.

11) 윤주영, 『중국본 서학서의 한국 전래에 관한 문헌적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슈으로서 고용된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제안에 의해 同文學이 설립될 때까지 약 80년간 조선은 서학과 서교에 대한 무시 그리고 배외사상으로 구미의 학술과 담을 쌓고 있었다. 물론 이런 쇄국정책 하에서도 간헐적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그것은 朴珪壽와 吳慶錫 등의 베이징 경유라는 극히 제한된 정보회로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1853년 오경석 등에 의해 서학한역서가 수용되고 실질적으로 구미의 지식의 도입이 수면 아래서 진행되어 西法, 西藝에 의해 開化自修할 수밖에 없다는 의론이 일어나기도 했다.<sup>12)</sup> 또 1844년에 위원의 『해국도지』초판본이 나왔는데, 조선에는 다음 해인 1845년에 전래되었다. 그런데 그 경로를 보면 1844년 10월 26일 兼謝恩冬至使를 베이징으로 파견했는데, 다음 해 3월 28일 겸사은동지사의 일행 중에서 正使 興完君, 李戩應, 副使 예조판서 權大肯이 위원의 『해국도지』 50권을 가지고 귀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베이징과의 육로를 통한 전래였다.<sup>13)</sup>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에 의해 탄생된 책의 전파라고 할 수도 있다.<sup>14)</sup>

그렇다면 상하이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서 상하이의 지식네트워크를 비롯한 새로운 문물을 목격하고 직접 조선으로 그것을 수용한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충분치 않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18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상하이를 방문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몇 명의 관리가 상하이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조선의 국왕에게 보고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수륙무역장정(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는 데 관여했던 어윤중(魚允中)도 1881년 기선(汽船)을 타고 일본을 거쳐 상하이를 왕래했다. 그가 1881년 12월 24일 복명 입시(復命入侍)하여 전한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 왕 그 나라(일본)의 정형은 대개 어떠한가? 윤중 왕 지금 시국을 돌아보니 부강하지 않고 보국(保國)하기 어려우니, 상하가 한 뜻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리할 뿐입니다. 상 왕 중원의 일과 각국의 허실을 자세히 탐문하여 알고 있는가? 윤중 왕 어찌 감히 상세히 알겠습니까. 상 왕 중원인이 많이 와서 거류한다는 말이 있는데, 중원의 일을 또한 상탐하였는가? 윤중 왕 중국은 일찍이 외부 사정에 어둡지 않아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았는데, 근래 군사(軍事)에 힘써 여러 도적을 평정하니 이는 곧 중국번(曾國藩), 좌종당(左宗棠), 이홍장(李鴻章)에 의지하는 바가 큼니다. 이에 힘을 얻은 자는 비록 팔기군 녹영병이 있으나 준군(淮軍)과 상군(湘軍)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 왕 대국의 사정이 전일보다 나아졌던가? 윤중 왕 러시아와 더불어 다투어 근일 배상하고 드디어 실상을 알고 실질적인 정무를 배우고자 합니다. 상 왕 일본은 겉으로는 부강하나 내실은 그렇지 못한가? 윤중 왕 나라 전체가 모두 부강에 힘쓰나 유신(維新)의 시작이어서 재력을 낭비하여 국채가 3억 5천만에 이르러 세입의 반을 부채를 갚는데 쓰니, 국인이 그것을 걱정합니다. (중략) 상 왕 근래 중원은 과연 어떤 일에 힘쓰던가. 윤중 왕 군무에 전심용력하기 시작했으며, 근래 통상국을 다시 열고, 운선(輪船)을 사용하며, 상업을 권장합니다. 외국인 오면 즉시 통상하니 곧 우리도 또한 상무(商務)를 따라야 하는 까닭입니다. 상 왕 일본으로부터 중원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윤중 왕 나가사키(長崎)로부터 상해(上海)까지 2300리입

12)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1, pp.194-196.

13) 진아니, 『19세기 魏源의 『海國圖志』 판본비교와 조선 전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p.26.

14) 어윤중(魚允中), 『종정연표(從政年表 연표)』, 1881년 3월 20일~10월 10일. 어윤중이 일본과 상해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배는 모두 기선(汽船)이었다.

니다.<sup>15)</sup>

이 일기는 조사(朝士)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어윤중이 일본을 거쳐 상하이를 왕복한 뒤, 입시하여 국왕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어윤중이 일본과 중국 사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서책보다 탐문(探聞)이 주된 방법이었다. 특히 상하이 시찰 과정에서 ‘강남 기기제조총국’을 견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조국 번역 서학서를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증정연표』 1881년 12월 24일 ‘서계(書啓)’를 좀 더 살펴보자.

서계를 드림. 신은 본년 정월 성지를 받들어 4월에 행호군 박정양 등과 더불어 동래에서 동양운선을 빌려 타고 일본으로 향해,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여 조선소, 공작국, 학교 및 다카시마 매광(煤礦)을 관람하고, 이에 고베항(神戸港)에 도착하여 화차(火車)를 타고 오사카에 도착하여 진대의 군사 조련을 보고 포병공장, 조폐국, 제지소, 박람회, 병원, 감옥 등을 두루 살피고, 사이쿄(西京)에 들어가 여홍장(女紅場, 여학교), 땡아원을 보고, 다시 천진(天津)에 이르러 비파호를 본 뒤, 고베로 돌아와 윤선을 타고 요코하마(橫濱)에 도착하여 직접 에도(江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산조시네마토(三條實美), 이와쿠라도모미(嚴倉具視), 테라시마무네노리(寺島宗則), 소에지마다네오미(副島種臣), 야마다아키요시(山田顯義), 이노우에가오루(井上馨), 오오야마이와오(大山巖), 가와무라스미요시(川村純義), 마스카타마사요시(松方正義) 등을 만나고, 관성공장(중앙 관청의 공장)에서 외무, 내무, 대장, 육군, 해군, 공부, 농상공부, 개척사(開拓使), 원로원, 대학교, 사관학교, 호산학교, 사범학교, 공부대학교, 해군병학교, 기관학교, 어학교, 농학교, 전신, 우편, 인쇄, 외사국, 교육박물관, 박람회, 제지소, 집야감, 포병공장, 육종장, 요코스카(橫須賀) 조선소 등을 견문하고, 일로 북쪽을 돌아 우스노미야(宇都宮)에 이르러 병사들을 보고, 니코산(日光山)에서 효묘 어필을 살폈으며, 여러 신하들이 모두 배로 돌아왔습니다. 신은 재주가 둔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견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개월 머물다가 나가사키로 돌아와 중국 상해에 이르러 소송태(蘇松太, 상해도를 일컬음) 병비도 유서분(兵備道劉瑞芬)을 만나고, 강남 기기제조총국(江南 機器製造總局)으로 가서 조포창군화를 관람하고, 다시 중국 상국(商局) 윤선으로 천진(天津)에 이르러 직이(예)총독 이홍장(李鴻章), 해관도 주복(周馥)을 만나고 다시 항로를 따라 상해에서 나가사키에 이르러 부산항에 도착하여 육지로 돌아왔으며, 대장성 사무 및 재정 견문은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sup>16)</sup>

이 서계는 조사(신사유람단 사신)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갔던 어윤중이 일본과 중국에서 견문한 일과 대장성 재정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한 글이다. 일본과 중국 왕래는 윤선을 이용했으며, 일본의 각종 기관을 시찰하고, 관계자를 다수 만났으며, 중국에서는 강남 기기제조총국을 방문하고 이홍장(李鴻章), 주복(周馥) 등을 면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제조총국을 방문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조총국 방문은 곧 번역 서학서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882년 영선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김윤식(金允植)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일기인 『음청사(陰晴史)』 1882년 4월 26일자 기록에서는 남국 제원의 회례단(回禮單)과 서목(書目)이 등장한다.

15)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학어문학』, 71, 2017 참조.

16) 강미정·김경남, 앞의 논문.

이 서목은 『격치회편』 1880.6.~8.의 ‘역서사략(譯書事略)’에 등장하는 서목과 모두 일치한다. 영선사 파견 이후 1883년 기기창(機器廠)을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번역 서학서가 국내에서 교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통한 번역서학서의 유입은 한국의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광린(1969)의 『한국개회사연구』(일조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순보에 인용된 각국의 신문명 가운데 중국의 『상해신보(上海新報)』, 『신보(申報)』, 『자림호보(字林滬報)』, 『항항서자보(香港西字報)』, 『항항중외신문(香港中外新聞)』, 『만국공보(萬國公報)』 등은 서양 지식을 한역(漢譯)하여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문들이다.

1880년대 광범위한 번역 서학서의 유입과는 달리 갑오개혁 이전의 外書 유통은 그다지 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조선 정부의 외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개항 직후 조선 정부에서는 외서 유통을 철저히 금지했다. 1884년 체결된 ‘조아조약(朝俄條約)’에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외서(外書)와 인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1886년 체결된 ‘조법조약(朝法條約)’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하지 않는 서적’이 어떤 것인지 밝히기 어려우나, 당시 조선 정부에서 외서 유통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880년대 해외 지식의 유통도 당시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格致彙編』의 경우 1876년 11월부터 1880년까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 판매소를 두었으나 조선의 경우 판매소를 둘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만국공보(萬國公報)』에서도 1874년부터 1883년까지 각국 근사(各國近事)를 기록할 때 한국은 ‘조선’이라는 국명 대신 ‘고려(高麗)’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 조선의 사정이 상하이 지역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번역 서학서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로 볼 수 있다. 1895년 학부에서는 근대식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다수의 번역 서학서를 복각하여 교과서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태서신사남요(泰西新史攬要)』, 『공법회통(公法會通)』, 『지구약론(地球略論)』, 『서례수지(西禮須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서적은 1887년 창립된 광학회(廣學會, 처음에는 동문서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당수의 책은 제조총국의 번역 서학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점은 독립협회의 회보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서 빈번히 『격치회편』을 소개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19세기 중엽 서양 선교사와 일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상하이 지식네트워크’는 당시 조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1880년대 이후 일본을 경유하거나 서양인들이 직접 서학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했다.

17)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 『漢城周報』의 관련기사 분석」, 『진단학보』, 101호, 2006.



## 5. 결론

이상으로 19세기 중엽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근대 지식 유통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하이 지식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지식이 생산과 유통과 수용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상하이에서 생산된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또 주변 지역의 수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이 지식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하이 지식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유통망에 대한 연구는 당시 배를 통한 해로(도) 등 교통망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 【참고문헌】

- 위엔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
- 葉再生, 「現代印刷出版技術の傳入與早期的基督教出版社」, 『中國近代現代出版史學術討論會文集』, 中國書籍出版社, 1990.
- 양일모, 「근대 중국의 서양학문 수용과 번역」, 『시대와 철학』, 15권 2호, 2004.
- 차태근,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 ‘廣學會’와 『萬國公報』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33호, 2005.
-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翻譯 研究 — 『萬國公法』 翻譯 事例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劉建輝, 『魔都上海: 日本知識人の「近代」體驗』, 筑摩書房, 2010.
- 羅愛子,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 1998.
-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 한울아카데미, 2001.
- 윤주영, 『중국본 서학서의 한국 전래에 관한 문헌적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1.
- 진아니, 「19세기 魏源의 『海國圖志』 판본비교와 조선 전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 2017.
-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 『漢城周報』의 관련기사 분석」, 『진단학보』 101호, 2006.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譯西學書, 上海, 知識网络, 朝鮮, 西洋宣教師, 日本			
	영문	The Chinese-language Western Books, Shanghai, Knowledge Network, Korea, Western Missionaries, Japan			
<div>A Study on ‘Shanghai Knowledge Network’ in the Mid of 19th Century</div> <div>Seo, Kwang-Deok / Lee, Kook-Bong</div> <div><p>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forming a knowledge network in Northeast Asian as a representative modern city in China after the opening of Shanghai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role of Western missionaries played a large role in Shanghai becoming a central city for producing and spreading Western studies in modern East Asia. These Western missionaries have created various organizations and conducted education and publishing activities for the mission and knowledge dissemination of Chinese people. The Chinese-language Western books that were produced in this way spread to Shanghai and other parts of China, and even to Korea and Japan. Thus, Shanghai became the center of modern Northeast Asian sea knowledge network.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from the end of the Edo Shogunate until the Meiji era, it traditionally traded with Shanghai and accepted many Chinese-language Western books produced in Shanghai. In the case of Korea, because of the policy of seclusion, it only accepted the book of Chinese-language Western books through the land transportation network with Beijing and its kind was also very limited. However, Korea is also somewhat later than Japan, but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bureaucrats visited Shanghai and accepted the book produced by the missionaries in Shanghai. In addition, the transportation network is important for spreading the book produced in Shanghai to China, Korea, and Japan. A study on the transportation network in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centering on Shanghai,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Shanghai Knowledge Network.</p></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서광덕 / 徐光德 / Seo, Kwang-Deok		이국봉 / 李國峰 / Lee, Kook-Bong	
	소 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上海交通大学 國際與公共事務学院	
	Em@il	skd2021@hanmail.net		kookbongl@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6월 05일		심 사 일	2018년 06월 07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